

‘일석이조’인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칠 것인가?’

반 건 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집위원장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or ‘Grasp All, Lose All’

Geon Ho Bahn

Editor-in-Chief,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좋은 소식과 불분명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전 회기 간행위원들의 사전작업과 2016년 1월 출범한 신입 위원들의 노력으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이하 과총)의 학술지 발간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총’에서는 매년 국내학술지의 출간 횟수, 발표 논문 수, 내용 평가 등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5월 결과 발표가 있었고, 우리 학회지는 절단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453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불분명하다기보다는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지난 3월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 ‘등재’를 위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6월 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재단 ‘등재’ 잡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학문 평가 기준이 SCI(E) 잡지 선정 여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분수를 지켜라’라는 속담도 떠오릅니다. 3-400백 명의 회원이 소속된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학회에서 이러한 잡지를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의 첫 논문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의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지원 사업’ 중 2014년도 사업 내용을 하경희, 홍현주팀이 정리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역협력모델 구축 사업’은 ‘학교 마음건강 자문의사’라는 새로운 직종을 탄생시킨 사업이기도 하며, 향후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기본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한익과 정재석은 그간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및 교육 특성을 고려한 학습장애 평가도구와 치료 매뉴얼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국내 아동 및 청소년 난독증 진단을 위한 종합학습능력평가

도구-읽기의 표준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직역간 논란이 되고 있는 ‘난독증’ 진단을 위한 한국형 객관적 평가도구입니다. 강나리 등의 ‘비만에 이환된 아동청소년에서 보이는 정신건강문제’는 제주지역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학령기 아동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기억력 평가과제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연구’는 오랫동안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평가도구 개발에 기여해 온 신민섭 교수팀이 개발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도구의 타당도 연구입니다. 기존 지필식 기억력 평가도구의 장점과 스마트기기의 장점을 연결시킨 새로운 시도입니다. 황보람 등의 ‘19세 미만 인구의 정신장애 진단 분포: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중심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표본자료를 이용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진단 분포 분석 결과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기획위원회에서는 2012-2013년 기간 동안 대한의학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논문을 SCI(E) 잡지에 발표해 왔으며, 이번 황보람 등의 논문 역시 이러한 작업의 연속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 게재하는 다섯 편의 논문은 흥미로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편의 논문 중 세 편의 논문이 각종 연구비를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이며, 다섯 편의 논문 모두 저자가 다학제 연구자들과는 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료경영학과 교수, 프로그램 개발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협업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반영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학회지는 ‘일석이조’ 또는 ‘이것 저것 다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하므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